



통권 93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9. 7. 10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파리의 망명객 홍세화와 양심수 어머니들의 만남



20년만에 조국땅을 밟은 홍세화씨가 양심수 어머니들을 만나러 목요집회에 왔다. 3년전 그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딜 가고 싶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가장 먼저 가야할 곳은 감옥"이라며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했었지만 감옥에서 고통당한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날 288회 목요집회에서 그는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않은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며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먼 길 떠났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 듯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과 홍세화씨의 만남처럼 지금 사진 속의 양심수들도 머잖아 환한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국사범·장기수 8.15 때 큰 폭 사면, 보안법 개편 추진」

「시국사범 등 278명 8.15 때 석방 검토」

김대중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을 받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과 8일에 있었던 당·정이 협의한 전원석방 검토안을 내용으로 한 신문기사의 큰 제목 글이다. "국가보안법 관

주의 손성모, 신광수 노인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1989년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장기구금양심수로 규정했던 260명 가운데 258명이 풀려나고 마지막 두명만 남은 다 같이 70세가 넘는 노령에다 위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병약자이다. 그리고 92년 대선때 터져 의혹이 풀리지 않았던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민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없는 세상

런 구속자와 수배자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도록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기사를 읽고 답골공원 민가협 288회 목요집회에 달려온 양심수 가족들과 학생정치수배자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이번만은 모두 석방되고 수배해제가 되어야 할텐데...', '또 무슨 조건을 달아 애 먹이는 것은 아닐까?', 지난 3.13, 8.15, 2.25 사면 때도 '큰폭 사면' 기사는 연거푸 있었지만 법무당국의 양심수에 대한 고전관념(체제 전복 세력이란)과 준법서약제 때문에 대부분의 양심수가 석방되지 못했음을 두고 하는 말들이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억압·무지·빈곤으로부터의 자유신장을 위해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한 세계적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메달'이기에, 바로 그 '자유메달' 정신에 따라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조치로서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악법과 제도를 없애고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고 있었다.

목요집회에서는 지난 2.25사면 때 장기구금 양심수로 풀려난 우용각 노인 등 19명과 같은 범

족해방 애국전선)으로 8년째 옥고를 치루고 있는 최호경 조덕원씨와 구국전위사건으로 6년째 복역중인 세계적 수학자 안재구박사와 서예가 류락진 노인(72세) 역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6년째 구금되어 있는 이화춘씨 등 이들 장기구금 양심수 7명을 비롯한 278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또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340일이 다 되도록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는 수배학생 학부모들도 청와대와 법무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8년까지 가족도 학우들과도 떨어져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식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절규이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도 조건 없는 수배해제 또는 불기소 입건, 기소유예 형식으로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가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창출에 힘을 보탬으면서도 오히려 쫓기고 있는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자유메달' 수상이 반독재·민주화 투쟁과 탄압 받고 고난 당했던

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권 탈취와 폭압통치, 양민학살 주역들을 사면했었기 때문은 더욱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자유·평등·정의·평화·인권이 보장되는 참 민주주의 사회로의 비전과 리더십을 지금의 위치에서 바로 발휘해야 한다는 정신이 들어있을 것으로 믿는다. 50년만의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는 외세와 독재 체제가 굳혀왔던 분단과 억압구조를 허무는 일이기도 했다. 과거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전통 계승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제 21세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 인류가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우리만의 동떨어질 수는 없다. "자유와 인권이 21세기의 중심적 가치로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자유메달' 수상 연설에서 말했듯이 그러한 가치추구를 피안에서 찾지 말고 오늘 우리 인권현실을 바로 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정이 협의하여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수배해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8.15 사면조치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주장한다.

첫째,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존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말한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경제적 자유 사회정의가 보장되려면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인권조항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은 미련 없이 없애야 한다.

둘째, 양심수 사면에서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당국에서 말하는 '재범우려'는 쓸 데 없는 우려일 뿐이다. 법을 지키고 어기는 것은 법 자체의 정당성과 제정에서의 합법성, 시행에서의 형평성에 달려 있을 뿐이지 '서

약'에 달려 있지 않다. 2.25 사면 때 출소한 장기 구금 양심수들과 지난 8월 사면 이후에 출소한(서약 없이 만기 또는 집행유예로 출소한) 6백명에 가까운 한총련 학생들 때문에 사회불안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셋째, 범민련, 한총련 등 민간통일운동단체나 민주적 절차를 걸친 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 그리고 사회진보운동 단체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해야 한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는 문명 세계의 가장 기초적 권리로 되고 있다.

넷째, 이미 국민회의에서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사면대상에 기결, 미결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88.12.21. 대사면 때의 선례가 있다. 바로 시국사범 전원석방 원칙으로 기결수 41명, 특별사면 특별복권, 수사중인 30명 검찰이 구속취소 석방, 재판중인 123명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청구하여 석방했다.

다섯째, 김영삼 정권 시절 부당하게 정치수배를 받아온 학생들을 비롯, 한총련 가입 또는 불탈퇴 등 혐의로 쫓기고 있고 학생들과 노동쟁의로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는 수배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와 함께 양심수 문제 해결에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이 사면 정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부당하게 구속되어 같은 세대들이 걷고 있는 정상적 사회복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다시 군에 징집되지 않고 정상적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게 병역법 시행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고 싶습니다

고현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정대현: 손과 발까지 수갑을
채운채 구타하여 손
목과 발목에 심한 타
박상

임동식: 단식으로 탈진, 허리를
다쳐 움직이기 불편

이철현: 구속과정에서 다친
다리가 악화되어 통
증 호소, 팬티바람으
로 이감당함

김명호: 머리가 뺨혀 나가고
얼굴과 목에 심한 타
박상. 목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

방석수: 허리 꺾여 거동이 불편한 상황

김창현: 손가락 4개가 문에 짓이겨짐, 목이 눌러서
말을 제대로 못함



▲ 가족들과 함께한 김창현 님.

고 돌보아야 하는 내 핏덩어리
로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그
렇게 귀한 내 자식이 폭행을 당한
것은 정말 내마음에 한이 맺히
는 일이지요."

김창현님(울산 동구 구청장)
의 아버지 김기대님(68세)은 당
시의 상황을 얘기하며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내내 활달한 목소
리와 자신에 찬 주장으로 사
건을 들려 주던 모습과는
르다. 한달이 지난 일이지만
버지 마음에는 아직도 멍울이

사라지지 않은 탓이라.

작년 여름 울산은 뜨거웠다.

6.4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정리해고 반대'와 'I.M.F
전면재협상'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민주노총과 민주주
의민족통일 울산연합의 후보들중 6명의 노동자 후보들
이 구의원 시의원으로, 두 명이 구청장으로 선출된 것
이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보여
주는 변혁적인 사건이었고, 울산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고조된 분위기는 두달을 넘길 수가 없었다.

소위 '영남위원회'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울산 시민
들은 어리둥절해했다.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까지 찾
아와 격려 연설을 하고, 노동자 시민의 편에 서서 열의
있게 깨끗한 구정을 펼치던 김창현 동구 구청장까지 구
속된 것이다. 취임 23일 만의 일이었다.

언론은 시끄러웠다. 경찰의 발표만 듣고 구속자들
넌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김정일 보위투쟁'을 위한

이 일은 5년전 혹은 10년전 일이 아니다. 불과 한달
전인 5월 31일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을 분리 수감하기 위해 강제 이감하는 과
정에서 생긴 일이다. 아직 형을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인 이들 9명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제로 분리이감시
키 위해 동원된 교도관 수는 무려 백여명. 고함과 비
명, 폭력과 공포심으로 살벌했을 구치소안은 이수라장
이요 생지옥이었을 것이다. 99년 5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다.

"자식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
리 창현이가 아무리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고, 공인으로
구청장이 되었다 해도 부모인 나에게는 언제나 보호하

적이라고도 했다.

애초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이 사건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와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던 디스켓의 조작 논란까지 빚어졌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3조)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7조) 구성죄를 적용했다. 구속 당사자들의 '조작'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을 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전화감청과 대화녹음자료,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경찰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와 출력물의 처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속자들은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된 컴퓨터 디스켓, 조작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작년 7월 23일 구청장실에서 집무를 보는 동안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다음날 면회를 가보니 하루만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를 체험으로 알고 있는데다 사건 자체의 황당무개함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도 말도 안되는 조작 사건이라 심문에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옥바라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평생동안 일기를 쓰신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김창현님에 대한 기록이 많다. 늘 마음 줄이게 하는 자식이기에 더욱 관심이 가는 탓이다. 아버지의 일기장 속에는 김창현님의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웅변 잘하고 노래 잘하고 공부 잘하던 기특하기만 하던 중고등학교때의 소년에서 역사와 민중앞에 당당하고자 고민하고 투쟁하던 청년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회 속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어엿한 성인의 모습까지.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금까지도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며 일기를 써야 하는 아버지의 손은 마음만큼 무겁다.

김창현님이 사회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81년 고대 사회학과에 입학하면서 부터이다. 1학년말에 있었던 '문무대 입소 거부 사건'은 그의 사회비판 의식을 부쩍 키워주었다. 선배들의 용기있는 행동과 구속, 친구들의 눈물을 보며 학생운동의 길로 들어선 김창현님은 3학년 2학기 '학생의 날' 부활을 위한 시위를 하다 구속되었고 구속된지 이틀만에 강제징집당했다.

복학 후 민중다운 삶을 살고자 '위장취업'을 하기도 했던 김창현님은 졸업후 87년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연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 때는 살벌하던 시대 아닙니까. 남영동으로 무조건 찾아가 큰 철문을 딱 눈앞에 두고보니 아주 이성을 잃게 되더군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하길래 큰 돌을 찾아가 철문이 부서져라 쳤습니다. 마침 차 한대가 나오더라구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차가 지나가는데 발을 확 집어 넣었습니다. 차가 급제동을 걸더라구요. 그때 차문을 뚫다 열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 새끼들아, 내 아들 창현이 내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총경이더라구요. 당신 누구냐구 묻길래 막무가내로 내 아들 내놓으라고만 하니가 다음날 면회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의 사랑은 별난 데가 있다..... 아버지는 갇힌 나를 찾아와 울며 죄송하다는 내 앞에서 당당히 꾸짖으셨다. "창현아, 나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누구나 잘못된 독재정권앞에서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는 현실에서 당당히 정의와 민주를 외치는 네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아무 죄없는 너를 투옥시킨 군사정권과 맞서 나도 싸우겠다. 힘내라!' 아버지는 삶의 지표를 가르쳐주셨고 끝없는 용기를 내게 주셨다.' <멈출 수 없는 길을 가는 나는야, 386세대> 김창현 지음 중에서

그 후 김창현님과 아버지는 정치적 동지가 되었고 단순한 부자관계를 넘어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되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번 사건은 '조작'이며, 아들이 분명 '무죄' 판결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아들에

게 준 가르침은 '짐승은 심신 산중에 혼자 살 수 있지만, 인간은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었고, 또 김창현님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러했으므로, 아들을 믿는 것이다.

현재 유일한 증거물로 채택되어 있는 디스켓을 경찰, 검찰, 판사 그리고 가족 대표가 입회한 자리에서 검색하던 중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디스켓의 주인인 박경순님이 구속된 후의 날짜들이 입력날짜로 된 자료들도 디스켓에서 나왔고 하다못해 디스켓이 생기기도 전인 80년의 자료도 검색되었다.

"판사가 놀라서 '이거 왜 이래?' 하며 경찰을 추궁하더라구요. 경찰이 자료에 일부 손댄 것을 시인하자 '왜 증거물에 손을 대냐'며 화를 내더라구요. 이런 흠있는 디스켓이 어떻게 증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반국가단체 결성' 어쩌구 하더니, 항소심에서는 저들도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꾸 죄목을 바꾸고 축소해 '이적단체 구성죄'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재판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처음에는 놀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사건 내용을 인정하려고 하던 울산 동구 주민들과 울산 시민들도 이번 사건은 정리해고를 반대한 동구청장에 대한 보복이며 정권 유지수단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아들에게 격려편지를 쓰고, 면회를 가기도 합니다."

새벽 3시 30분이면 하루를 시작하시는 아버지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 간다며 바빠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 아버지는 요즘 울산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 탄원서를 받는 일로 바쁘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니 20만 동구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1년 가까이 공석인 구청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김창현님을 보석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받느라 바쁜 것이다.

미결수에 대한 강제이감과 구치소측의 구타사건에 대한 항의로써 지난 6월, 16일간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단식투쟁을 하던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바짝 바짝 타들어 갔다. 구역질만 하며 초췌해져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무거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낙천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 사건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 준다면' 하늘과 땅이 흰히 알고 있는 조작사건으로 모든 관련자는 무죄이며, 김창현님과 그의 동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남다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믿음때문이다.

문을 나서던 아버지는 다시 돌아서 환한 얼굴로 기쁜 약속을 하나 남기셨다.

"우리 창현이와 다른 동료들이 석방되면 잔치 한 크게 할랍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우리 아들이 놀라는데 돼지 몇마리 못잡겠습니까? 동구청 마당에서 잔치를 벌일테니 그 때 꼭들 오십시오."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답지 않은 건장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얼핏 30년전 맘 좋고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한다. 시청 앞마당에서 한창 다른 동네 녀석들과 야구시합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음료수 한 상자를 사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당시 음료수는 소풍갈 때나 맛을 보는 귀한 것이었는데 한 상자나 나타났으니 아이들은 전부 놀라고 말았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우리 집은 전세를 못 면하고 1년에도 몇 번씩 이사를 다닐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웠다).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짓는다.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것이다.' <멈출수 없는 길을 가는 나는야, 386세대> 중에서

그 당시 꼬마들의 환호만큼이나 즐겁고 기쁜 민주의 함성이 울려 퍼질 즐거운 잔치가 이 여름이 가기전 어지길 기대해 본다.

한지연 • 6월 24일 민가협 286회 목요집회에서 발표

7월 3일. 달력에는 아직도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덧칠해진 가위표가 더 선명하게 제 마음을 찢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 결혼을 2주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오혁의 아내입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구속된 이후에 저는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남편을 어떻게든 만나야겠기에 법적으로나마 결혼을 하고 저는 권오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연행된 6월 17일은 청첩장을 만들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민권공대위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남편은 그날 상임대표인 홍근수 목사님과 집행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충무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던 저는 호출을 하며 밤을 새워 연락을 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얼마전 학교에 다니던 남편의 친구 한 사람이 자취방에서 연행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터라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틀후야 비로소 학교 후배로부터 서울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들이 뭔가 실수를 했으리라 생각하며 남편 면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면서 알게된 혐의는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을 한총련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지목하고, 더구나 이른바 '인터넷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이창호씨의 배우자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이미 구속된 친구의 진술만으로 남편을 잡아들이고, 황당무계한 혐의를 씌워 구속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조차 그들은 이창호씨와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학교 동기의 자취방에서 압수한 디스켓의 소유 여부를 지금까지도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졸업을 앞둔 학생을 구속하여 억지 진술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그것을 발미로 결혼을 앞둔 사람을 마구잡이로 연관시켜 구속하는 공안당국의 행태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구속영장에는 과거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관련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동료, 또 관련자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지 공안당국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불법적인 감청을 통하여 서로 만나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 학생운동 경력이 있거나,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국보법 위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나의 행동을 감시하고 나의 전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이 사회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의 구속으로 인해 저희 양가 집안은 모두 참담한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남편과 저를 믿고 순수 혼인신고를 해주신 저의 어머니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국가보안법과 공안당국에 맞서 남편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민가협과 민권공대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힘을 합쳐 싸울 것입니다.

왜 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유현미 · 후원회소식 편집부



동무 사이 같다. 딸래미가 흰칠하게 키가 큰데다 엄마인 조명희님(34세)은 긴 머리를 단정히 묶어서인지 뒤에서 보면 사춘기의 여자에 둘이 걸어가는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영민이(17세)가 엄마보다 더 크다. 둘이 손을 잡고 걸었던가, 더워서 조금 떨어져 걸었던가. 딸이 먹는 얼음과자를 엄마가 뺏어 먹는다.

처음에 조명희님은 도대체 자기를 왜 '이력 회원' 난에 소개하려 하나며 어떻게 좀 피해갈 방법이 없겠냐고 하소연했다. 내가 누군가. 이렇게 극구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만나고 싶어진다.

더운 일요일 오후, 조명희님 모녀와 내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밖에서 만나 함께 찾아간 곳은 새로 이사한 '우리탕제원'이었다. 먼저 영민이를 찢러 본다. 날도 덥고 시험이 널 모런데 엄마 청에 못이겨 나온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반이에요. 엄마 청 반, 스스로 가고싶은 마음 반." 영민이는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낙성대 '만남의 집' 에라를 무던히도 들락날락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방학이면 놀러가서 아예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다. 조창손 선생님,

홍문거 선생님 들과는 영낙없는 친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이다. 스스로 없다. 이 아름다운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애들을 키우면서 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조명희님은 자연스럽게 '참교육학부모회'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와 더

▲ 우리탕제원 앞마당에서 '괜찮은 친구' 이기도 한 딸과 함께. (조명희님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 글쓴이)

불어 강남 참교육학부모회도 여러가지 일로 몹시 바빠던 시절. 민통련 모임에 나가던 남편 김동렬님은 민통련 정치학교 3기생이기도 한데 거기서 인재근 씨랑을 알게 되기도 했다. 연말이면 민통련 강동지회에 속한 30~40명이 집에 와서 송년회를 하곤 했다. 그것도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다반사. 그런데 문제는 많은 손님들을 한꺼번에 '끌고' 오는 남편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나서 좋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곤 하는 조명희님에게 있었다. 사회의 문제에 늘 깨어 있게 하고, 사회를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과 일에 열려 있도록 도와준 남편을 조명희님은 존경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조명희님 스스로 먼저 특 트인 사람이 아니었다더라면 이런 쉽지 않은, 아름다운 인연은 생겨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후원회 일을 하게 된 것도 조명희님에겐 그냥 흐르듯 당연한 일이었겠다. 이런 분을 '양심수후'

회원'이라고 딱딱하게 못박는 것이 외려 답답하게 느껴진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번씩 낙성대 '만남의 집'에 소수영 씨와 함께 가서 어르신들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다.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일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조명희 님 자신에게는 몹시 뜻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만남의 집'에도 늘 찾아온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조명희 님은 '이곳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까를 늘 생각했다. 결론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 '만남의 집' 선생님들은 차츰 조명희 님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는 자리의 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그이들 곁에서 파도 다듬고 마늘도 까며 재미나게 얘기도 주고 받으셨다. 어울려 사는 사람살이의 살가운 잔정을 느끼며.

조명희 님에게도 각별한 순간이 있었다. 홍문거 선생님이 출소하셨을 때다. 얼마 있다 나오셨냐고 여쭙자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노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조명희 님의 그 때 나이와 똑같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커다란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장기수 선생님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감옥에 오래 계신 거야 워낙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 데도 홍문거 선생님과 마주앉아 얘기를 나누던 그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이 얘기를 하면서 조명희 님 눈에 금새 눈물이 고였다). 그 아픔은 곧

그이만의 깨달음으로 이어졌겠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정열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바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내게도 할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처음 생겼다"고, 큰 딸 영민이가 처음 낙성대 할아버지들을 뵈고 온 뒤 일기에 썼다(영민이랑 작은 딸 예슬이는 친가와 외가쪽 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다). 초등학교 때인데 아주 다부진 말투다. 해마다 8월에는 후원회 여름 수련회가 있다. 직장 때문에 엄마는 못 가도 애들끼리 알아서 옷가지 등을 챙겨가지고 둘이 손잡고 수련회에 다녀오기도 한다. 민통련 일을 하는 아빠 따라다니며 아이는 민중가요 노래를 다 췌다. 공부도 저희들이 알아서 한다. "내가 키웠다기 보다는 스스로 잘 커 줬어요."라는 조명희 님의 말에서 딸과 엄마 사이에 흐르는 두둑한 믿음의 두께가 느껴진다.

후원회 식구들 가운데 조명희 님을 여태껏 나만 모르고 있었나 보다. 이 소식지에 쓰기 위해 조명희 님과 나눈 얘기의 반에 반도 여기에 못 썼다. 내용이 차고 넘쳐서. 그래도 괜찮겠지. 앞으로도 그이는 변함없이 그 자랑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후원회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을 테니까. 이렇게 쓰고 있자니 이 글을 읽고 또 씩쓰러워 할 조명희 님 모습이 떠오른다. 언제까지나 '부드러운 힘'으로 후원회의 한 귀퉁이를 환히 밝혀줄.

‘맨발의사’ 안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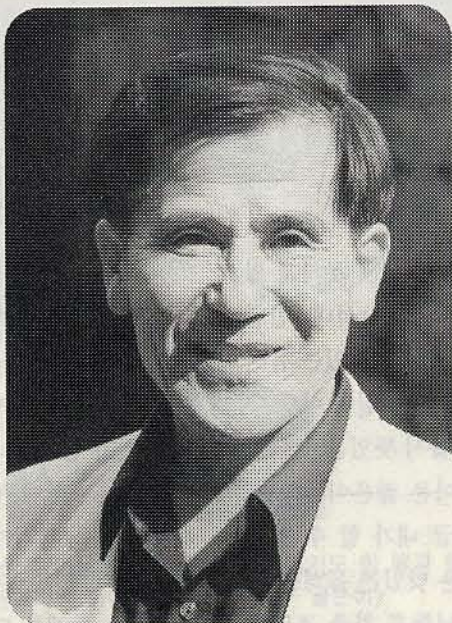
안일순 · 소설가

1. 경북 선산군 출생. 한국은행 입사 의용군 입대. 월북. 건축가로서 평양 도시건설참여. 61년 4월 남하, 체포. 73년 전향. 74년 재범으로 선고 5년. 다시 비전향. 침술의 원조로서 옥중에서 ‘맨발의사’로 활동. 38년간 복역. 99년 2월 25일 출소. 현재 과천 <한백의집> 거주.

약력에 드러난 안영기의 선생의 삶의 역정은 다른 장기수들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그의 약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당시 입사하기 어렵다는 한국은행에 합격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장된 직장을 버리고 왜 의용군에 입대해 월북했을까? 또, 전후 파괴된 평양시 건설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건축가가 어떻게 한의사로 변신했는가? 또 한번 전향을 하고, 다시 비전향으로 돌아섰던 전력 뒤에는 어떤 사정이 숨어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6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안고 과천으로 안영기 선생을 찾았다. 작으나 다부진 골격을 가진 그의 모습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부르짖던 동학의 녹두장군을 연상케한다. 반갑게 내미는 손을 잡고 멋모르고 악수를 당하자(?) 그 손아귀의 역센 힘과 곰발바닥 처럼 두터운 손의 악력에 놀라 아그그 소리가 절로 났다. 그 손에 붙잡힌 채 웃음짓는 토종 조선인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 손을 통하여



무언가 묵직하고 열정적인 氣感이 혈류를 타고 전해졌다.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나서 반짝이는 눈동자에 어리우는 그 특이한 氣는 ‘안영기’라는 한 인물을 움직였던 내부의 연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2. 경북 선산군 동부면에서 떠돌이 원목 제재공(原木 制工)의 6남 3녀중 4번째로 태어났던 그는 유난히 학구열이 강했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사정은 그토록

가고싶은 배움의 행로를 번번히 가로막는다. 대구 ‘가다꾸리’ 공장에 다니는 누나의 손이 걸레처럼 하얗게 부풀은 것을 보고, 혼곤히 자는 밤 부모님이 두런두런 돈걱정을 하며 내쉬는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 그는 번민했다. 그래서 그는 영도국민학교 고등과를 나오고서 금융조합의 사무원으로, 다시 부산식산은행 견습생으로, 그리고 끝내 공부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여 부모님 몰래 부산 제일상고(현 경남상고)에 입학, 그러나 다시 학업을 중단하고 경남 초등 교원양성소를 나와 국민학교 교사로 취직, 또다시 상고 복학. 이렇게 학업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하며 그는 늘 마음껏 채울 수 없는 배움에의 허기를 달래야했다.

그가 의용군을 따라 북으로 간 이유는 간단했다. 이태준의 <북조선 기행문>에 ‘북조선에서는 국가장학금으로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귀절이 그의 마음을 령해 버린 것이다. 미련없이 직장을 버리고 의용군에

원해 북으로 가게된 그는 인민군대를 따라 월북하면서, 인민군최고사령부 정찰국 제3출장소에 있다가 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평양으로가 건설대에 입학해 그로부터 5년간 원없이 대학공부를 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다'고 표현했다.

집없이 살던 설움을 겪던 그는 집없는 사람들에게 값싸고 쓸모있는 집을 주자'는 생각으로 건축공학부를 지망, 졸업하였다. 또한 건설성 평양건설총국 제4트러스트 시공기술부 지도원에 배치되어 1년 있다가, 다시 제3건설 트러스트 동평양건설 공정시공부장으로 있으면서 옥류관, 소련전람관(현 건설전람관), 평양 혁명박물관(현 역사박물관)등 평양시 건설을 주도하게 되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아 일을 하면서도 대학원과정이라 할 수 있는 연구원과정까지 밟았다. 이때 같은 대학 토목공학부 수력건설학과에 다니는 여성을 만났고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한다. 그녀 역시 전기설계연구소설계연구소중소용량 수력발전소 설계반 책임자로 일하는 씩씩한 여성(현 64세)이었고 난경(42세) 난희(40세) 두딸을 낳으며 중앙공급상급대상자로서 행복한 3년간의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중 61년 4월 당에 소환되어 '통일사업의 임무'를 띠고 남하하다 8월 강릉에서 체포되어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구형, 무기언도를 받는다. 그리하여 기나긴 옥살이가 시작되었다.

3. 그러면 평양시 건설 현장에서 늘 거대한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과 씨름하던 그가, 어떻게 바늘보다 더 가느다란 침으로 인체의 미세한 경혈을 더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는 장기수들간에 '침의 원조'라 알려져있다.

양철식기에 담긴 콩밥 한덩이와 멀건 소금국으로 때론 얹드려 개밥을 먹으며, 쥐를 잡아먹으면서 까지 살아야 했던 감옥생활에서 허물어지는 것은 정신보다 먼저 몸이었다. 살아 생명을 지키는 것만도 힘에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데 혹독한 전향공작이 시작되면서 특별사동의

장기수들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그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동지들이 죽어 실려 나가는 것이었다. 체격이 좋고 소화가 잘되는 덕분에 나이드는 동지가 남긴 밥을 혼자서 먹고 나면 그는 늘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는 고민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문을 당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이드는 장기수들을 업어서 용변을 보게하고, 몸도 닦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고민 끝에 그는 한의를 배워 자신은 물론 동지들의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는 <침구경혈해설>이라는 책을 구해 통째로 외울 때 까지 종이가 닳도록 읽었다. 그러나 이론과 함께 임상실습을 병행하지 않고는 의술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침이 필요했다. 궁리끝에 몰래 잡지제본용 철사를 뽑아서, 때론 은단과 안의 스프링을 빼어 갈아서, 전선줄을 구해와 껍질을 살살 벗겨서, 그것들을 침으로 사용했다. 임상실험을 할 대상이 없자 자신의 몸을 임상용으로 써보기로 하였다. 철심으로 주의깊게 경혈을 찾아 찌르면 침심에 끄달려 살점이 딸려나와 온몸은 피딱지가 엉겨 붙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자신의 몸이 침에 의해 좋아졌고 서서히 자신감을 갖게되자 그는 주변환자들에게 시술을 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젊은 사람의 마취혈에 침을 놓았는데 실제로 마취가 된겁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다혹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당황했는데 다행히 마취푸는 혈에 침을 놓자 환자가 언제 그랬냐는듯 일어났습니다. 침술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교도관중에서도 침을 놓아달라는 사람이 생기고 상당히 대접도 받았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침술, 해부학, 인체구조 등에 관한 책들도 구해볼 수 있게 된거지요."

무서운 집중력과 탐구심을 가지고 이론과 실습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내공(內功)을 쌓은 그는 수인들은 물론 간수들까지 좌골신경통, 두통, 목디스크, 고혈압, 관절염은 물론 웬만한 난치병은 다 고쳐 주었다. 27년전

허리를 다친 환자도 한달간 정성껏 치료끝에 완치 시켰으며, 여석조라는 제일동포는 당뇨합병증으로 수족을 못써 마비되어 걸음이 늘 뒤통거렸는데 두달남짓 침과 뜸으로 치료해준 결과, 나중에는 탁구까지 치게 되었다.

침에 얽힌 일화는 많지만 그중 정대철 선생이 만들어준 '대못침'을 평생 잊을수가 없다. 정대철 선생은 그가 제대로된 침을 못구해 애쓰는 것을 늘 옆에서 안타깝게 여겼다. 정선생은 출소 열흘을 앞두고 마지막 선물을 한다고 하면서 스피커를 걸던 대못을 어떻게 구해 그것을 이십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안자고 콘크리트 바닥에 깔았다. 그의 손은 엉망이 되었고 마침내 굵은 못은 반짝이는 침이 되었다. 후에 정선생은 출소 후 부산양로원과 한산도 농장 등을 전전하다가 자결했다. '보안관찰자'라는 이유로 일터에서도 쫓겨나고 무연고로 육신을 누일 방한칸도 없어 고생하다가 잣나무 아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자결했다.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으니 잣나무의 거름이라도 되겠노라고. 지금도 그 '대못침'을 사용할 때면 마음이 울적해진다.

출소 후에도 그는 침술로 인해 누구보다 바쁘다. 요즘에는 광주 퇴촌의 정신대 할머니들이 살고있는 <나눔에 집>에 자주간다.

"아이고 안선상님, 여기 오른쪽 다리가 자꾸 저려 앉지도 서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걸 참고 견디셨어요. 뜨거운 물로 찜질이라도 하셔야죠."

조센삐와 장기수 - 일본 천황군대 사단병력을 온몸으로 받아내 606호 항생제가 전신에 녹아내려 아직도 핏줄마다 주사독(毒)이 가시지 않은 조센삐를, 육신 마디마디 퍼렇게 뻔 옥독(獄毒)이 채 가시지 않은 장기수가, 한자리에 앉아 침을 놔주고 침을 맞는다. 꽃다운 처녀와 순박한 총각이 반세기에 걸친 험난한 오욕의 역사를 구비구비 돌아와 이제 백발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되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보듬고 위무하는 장면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비애의 한 장면이다.

4. 안영기 선생의 이력에는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긴긴 옥살이 동안 그는 전향에서 비전향으로 다시 돌아섰으며, 그 사이에 소위 '붉은별 사건'으로 5년형을 받은 대목이다. 73년 안영기 선생 역시 다른 장기수들과 마찬가지로 전향공작이라는 혹독한 시련과 대면하게 된다. 그해 8월 임시사형장에 갇혀들에게 끌려간 그는 8시간 계속되는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서 이대로 맞다간 죽는다는 생각이 동물처럼 감지되었다.

"이 빨갱이 놈의 새끼야, 너 이승만 대통령 죽이러 왔지. 너 맥아더 사령관 죽이러 왔지? 이런 터무니 없는 소리를 지껄이더군요. 내가 온게 62년인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도둑놈들에게 맞아 죽는것이 혁명의 길인가? 자카로 전향하고 이자리만 모면하자. 살길을 찾아 또 싸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굴복했습니다."

그후 그는 1년간 전향자의 굴레를 쓰고 살면서, 어딘가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다. 그는 전향 취소를 위해 단식도 했지만 허사였다.

"그때는 일반수들 20명 정도하고 같이 있었는데 간첩이라 하고 무기수라 하니 신기한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일부러 어마어마하 애기들을 해주며 이 사람들이 밀고를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하는 거예요. 밀고하면 상도 타고 감형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대구에서 라디오를 구해 일본방송, 북쪽방송을 듣다가 발각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 5년형을 받고 나니까 전향 취소가 되었지요."

특별사동, 먼지끼고 흐릿한 알전등 아래 냉기 흐르는 벽을 바라보며 그는 전향한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 일년여간 전향자의 정신적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거대한 정신적 폭력이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독재의 하수인들이 분류하고 갈라놓은 전향, 비전향 장기수들을 이간시키고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혹한 이분법을 극복함으로써 무화(無化)시켜야 한다.

다짐했다. 5만이 넘는 사상범들에게 강요된 이 거대한 굴레를 무력화 시키는 길은 전향, 비전향자가 다 똑같은 국가권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선 비전향자가 전향자를 감싸안는 것부터 해야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5. 또하나 그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7개국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및 러시아어, 불어, 독어, 중국어, 영어까지 그의 어학 공부법은 우직스럽고 무식했다. 그는 헤르만헷세의 소설 〈아름다워라 청춘이여〉를 통째로 외우면서 독일어를 공부하였고, 영어는 〈전쟁과 평화〉 영문판을 5번 씩 읽으며 깨어나갔다. 중국어는 마사범으로 들어온 수인에게 북경발음을 정확히 배웠고 그는 영문법 사전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는 오랜 수형생활에서 흔들리고 회미해져가는 정신을 다잡는 길고 긴 싸움의 방편으로 삼았다. 건축학이든 한의학이든, 어학이든, 그는 오로지 일념을 가지고, 흠어진 정신을 집중했다. 99년 2월 25일 풀려난 그는 어학 덕분에 간간히 의뢰해오는 번역료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있다. 영어회화는 실전의 기회가 없었음엔지 혀가 굳어 독해나 영작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6. 그가 최근 과천에서 김은환(70) 장호(81) 홍문거(79) 선생과 함께 한백공동체를 이뤄 헌책방을 시작했다. 그동안 민가협등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 이제 자립해서 무언가 남을 돕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네사람은 서로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 어렵게 전세를 얻었다. 그러나 앞으로 자립하겠다 것이지 현재 자립한 것은 아니다. 팔십을 넘은 홍문거 선생의 취로사업비와 생활보조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책방수입, 왕진료, 번역비 등으로 집세, 가게세, 전기비, 생활비 내기에도 빠듯하다. 더구나 홍문거 선

생이 땀별 아래 노동을 하고 돌아와 당번이라고 다시 부엌에 서서 묵은 반찬을 꺼내 저녁상을 마련할 때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 탕제원을 차려 일을 하고 싶지만 당장 집세걱정, 내일 아침 국거리 걱정 먼저 해결해야한다.

‘집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싶어’ 건축공학과에 간 그가, 육중한 역사 박물관의 주춧돌을 들었던 그가, 정작 38년간 몸담고 살아온 곳은 사람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0.75평 축사와도 같은 곳이었고,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도 그의 몸을 담을 곳은 보자기 만한 창으로 햇살이 겨우 들어오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비하면 지금의 지하방도 너무나 과분하다. 그리고 〈한백의 집〉 당호도 마음에 든다. 한백은 민족의 성산(聖山)이며 시원(始元)의 땅인 백두산과, 한라산을 양축으로 하여 한반도의 등뼈를 잇는 그런 통일의 집이란 뜻이다. 다른 장기수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조금도 정신 흐트림없이 오로지 일념으로 통일이라는 화두를 안고 수십년을 살아왔다. 통일은 곧 목숨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자신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기에, 통일이 아니고서는 가족과도 만날수 없기에 그 화두는 목숨 그 자체였다. 그래 漢과白 이 두 글자에 평생의 비원을 담았으니, 어찌 좋지않으랴.

요즘 그는 매일아침 수영을 한다. 칭칭 포승줄에 묶이어 움푹달쭈 못했던 몸, 38년간 몸에 밴 음습한 곰팡내를 말끔히 씻고, 겨드랑이에 선 날선 물갈퀴가 돌아난것 처럼 썩썩 물살을 가르며, 물개처럼 헤엄을 친다.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뻗을수 있다는 것이, 제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도록 좋은것인지!

이제 칠십고개를 막 넘은 그의 생 앞에는 희망이라는 푸르고 환한 인생의 새 장이 활짝 열려져 있다.

저 여름 잎사귀들처럼 순하고 맑게

유현미 · 후원회소식 편집부



6월 20일, 10시 정각. 당고개역에 도착해보니 많은 분들이 먼저 와 계신다. 그 중에

벌써부터 덥다. 등쪽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진다. 바람 없고 은하리 폭폭 지

서도 단연 돋보이는 팀은 갈현동 만남의 집 선생님들. 9시 15분부터 와 계셨으니 표창장을 드려야 할까 보다. 역 앞은 우리가 오를 수락산뿐만 아니라 맞은 편에 서 있는 불암산행 산꾼들로 울긋불긋 그득하다. 도깨비 시장엔 온갖 과일들이며 채소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김밥 따위를 파는 좌판들이 넘친다. 펼치지 않은 긴 우산까지 들고 서 계신 이세균 선생님 모습이 '일본 장교' 같다고 누군가 놀리자 그 앞을 "보고드립니다!"라고 힘차게 경례하며 권오현 선생님이 지나간다. 오기로 한 회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서로 안부를 전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드디어 출발. 초록색 줄이 서늘하게 그어진 시원한 수박도 몇 통 들고 수락산에 오른다. 두 살이 채 안 된 승민이부터 가장 나이드신 젊은(!) 이세균 선생님까지 모두 38명이다. 수락산행 때는 늘 회원들이 많이 모인 다며, 언젠가는 70여명이 우글우글 모여서 산에 오른 적도 있노라고 권 선생님이 웃음을 담백 담은 얼굴로 말씀하신다.

날씨, 아이구 괴로운 날씨. 길가에 핀 산나리꽃, 산딸기 꽃도 덤썩다. 소나무 기둥에 있던 하늘소 한 마리를 잡아서 반갑게 쳐다보다가 다시 놓아주었다. 긴 더듬이가 두 개, 튼튼한 다리가 세 쌍이다. 잘생긴 고동색 하늘소야. 오래오래 새끼 낳고 이 숲에서 잘 살렴. 다음에 또 만나다.

잠시 설점 물도 마실겸해서 '학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했다는 학림사에 들른다. 새로 지었지만 요란하지 않고 단정한 절집. 학림사 약수는 아주 차갑지는 않았지만 갈증을 잘 달래주었다. 샘 앞에 부처님 말씀 한 줄. "마음 마음 마음이며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 받아들여도 한번 웅졸해지면 바늘 하나 꽃을 자리 없구나..." (맞다구요, 맞아요!)

오백나한전을 들여다본다. 그윽하고 시원한 향냄새가 좋아서 무심코 들여다본 것인데 아주 재밌다. 오백나한들이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옆사람과 얘기하며 해찰하는 나한, 허리춤에 신령스런 용을 감고 있는 나한, 손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는 나한, 통

를 들고 있는 나한, 책 펴고 눈은 딴 데 보는 나한, 낄낄 웃고 있는 나한, 뒤통수를 긁는 나한, 두루미를 품에 안고 있는 나한, '어이 왜 불러' 라는 표정으로 뒤돌아보는 나한,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는 나한, 아무 표정 없이 그저 고요히 앉아 있는 나한... 인간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싱긋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학림사부터는 반가운 산길. 그동안은 승용차도 거뜬히 지나다니는 넓은 콘크리트길이었지. 산행엔 한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좁고 그늘진 산길이 제격이다. 그러나..., 어떤 산행도 쉬운 산행은 없을꺼야. 더 높은 곳을 향해 위로 오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산은 역시 힘에 겨웁다. 선생님들은 어쩔 저렇게들 잘 오시는 걸까. 짹 소리 못하고 안 힘든 척 걷는다. 바람이라도 좀 불지. 야속하구나.

점심 먹기 전에 한번 더 쉰다. 선생님들 얼굴에 때아닌 단풍이 들었다. 땀 흘리고 더워서! 산 그늘이라 젖은 등이 금새 서늘해진다. 쉼 때마다 시원한 얼음물이나 배즙을 들고 다니며 선생님들을 챙기는 분이 눈에 띈다. 누구지? 학생운동하는 아들(98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한 정병도 군)을 둔 정석남 님인데 몸놀림이 하도 조용하셔서 계신 줄도 몰랐다가 나중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겨우 알았다. 후원회엔 이런 분들이 참 많다. 한숨 돌리고 나자 산새소리도, 사람들 소리도 잘 들린다. 우리는 정말 산의, 아니 자연의 일부일까. 자연의 일부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해치는 사람도 많다.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한다. 수락산 숲을 이루는 굴참나무, 신갈나무, 노간주나무, 산초나무, 아까시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저 나무들 줄기마다 성성히 나 있는 싱그러운 녹색 잎들. 저 여름 잎사귀들처럼 순하고 맑게, 서로 어울려 살아야지.

하사이종게 점심을 펼쳐 나눠 먹은 뒤 쑥스럽고(?) 즐거워 자기 소개 시간! 이번 산행엔 한림대 출신 학형들도

참여했다. 조덕원 씨 석방을 위한 고려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선생님들도 별점해서 일부러 후원회 산행에 합류했다고 한다. 졸업하고서도 연대의 끈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시원한 계곡 물에 얼굴도 씻고 더운 발도 담그면 더 좋았겠지만, 어디 우리가 뭐 꼭 산만 보러 산행을 하나?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 나누다보면 새로기운도 솟고 행복해지는 것을.

7월 산행



달마다 좋은 사람들과 산에 오르면서 삶을 배웁니다. 숲 속에 사는 나무, 꽃, 곤충들과 함께 상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쉬엄쉬엄 걸으면서 어른들이 들려주는 인생이야기, 저마다 정성껏 마련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재미, 양심수후원회 산행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언제

1999년 7월 25일 오전 10시

어디로

도봉산

모이는 곳

도봉산 입구 안내도

(19번, 2번 버스종점에서 산쪽으로 10여미터쯤 걸어오다보면 오른쪽에 철로 만들어진 도봉산 안내도가 있어요! 1호선 도봉산역에서 10분거리예요.)

민혁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황선희

생각하면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 특히 민혁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남편과 7년을 헤어져 사는 것의 시작은 92년 9월 10일이다.

초가를 날씨도 좋았고 다음날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다. 차례를 지내야 했기에 얼마 되지 않지만 음식 준비를 거의 마친 시간이었다. 밤 9시경 전화를 받고 나간 남편이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 했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연휴 마지막 날, 혹시나 해서 한겨레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내일자 신문에 남편 기사가 나갈 거란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신문을 봐야할텐데 무슨 내용일까?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신문을 들 수가 없었다. 그 유명한 안기부에 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날부터 민가협 당시 회장이셨던 김성숙 어머니를 비롯, 구속자 가족 등 어머니들이 모여서 안기부 앞에서 싸웠다. 우리는 끌려간 이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는 요구했을 뿐이나 시커먼 전경들에 의해 터지고 찢기고... 울며불며 20일을 싸웠다.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그러나 안기부 주장대로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한 일이 없다. 무슨 일을 했기에 무기를 받아야하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한단 말인가. 재판이란 것이 그렇게 형식적인 것인 줄 처음 알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리는 것이다. 그 일로 남편은 무기형을 받았다. 난 무기수의 아내가 된 것이다. 신문에서 '무' 자 가 들어간 단어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 것도 모르는 민혁이는 아빠의 행방을 물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대로 말해주지 못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온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와 헤어져 살면서 중학교까지 입학했다. 민혁이가 처음 가방 메고 유치원 갈 때, 혼자 보내는게 너무 걱정돼 몰래 뒤따라가서 아들을 훑쳐보던 남편이었다. 길을 가다 공중전화에 동전 남은 것을 보면 곧장 민혁이와 전화통화를 하던 남편. 항상 어깨 위에 태우고 다니길 좋아했던 아빠와 헤어져 살면서, 그 어릴 때부터 혼자 열쇠를 가지고 다니던 민혁이. 일 마치고 저녁에 와보면 열이 나서 혼자 앉고 누워있을 때도 있었다. 한번은 대전교도소에서 소내싸움이 있어 내려갔는데 민혁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방에 있던 도자기 병을 깨뜨려 어찌할 바를 모채 울고 있기도 했다. 그런 가슴아픈 과정을 거치서 그래도 잘 자랐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컸을까. 가엽고 또 기특하다. 7년 동안 공장과 식당 일, 외원도 하면서 민혁이와 둘이 살아왔다. 이런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은 사면 때마다 행여나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순간이다. 민혁이와, 같은 슬픔을 따로 따로 삼키기를 몇 번인가. 그러나 꼭 믿었던 2.25 사면에서 풀려나지 못하자 그 슬픔은 삼킬 수가 없었다. 통곡하며 저주했다. 그 분노와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8.15가 다가온다. 벌써 초조하다. 김대통령이 대사면을 한다고 한다. 어제 뉴스에서 '최호경' 이름을 들었다. 진정 이번에는 어린 아들 가슴에 슬픔을 씻어주길 기대한다.

기빠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싶다. 이 긴 세월의 깊은 상처를 올 여름에는 치유하길 기대한다.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아픔은 끝나야한다. 최호경을 비롯한 장기수, 모든 양심수 문제 이번에는 꼭 해결되리라 믿는다.

내 친구 조덕원의 석방을 기원하며

조국연 · 청년양심수 조덕원 석방추진위원회

제 친구 덕원이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고 1992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당국에 의해 확대, 조작된 민족해방애국전선, 애국동맹 사건으로 구속,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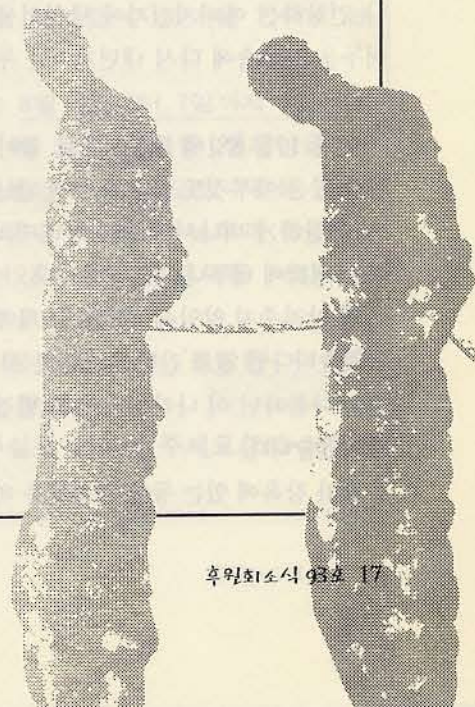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는 소위 '젊은피'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그 많은 386세대 중에서 지금까지도 투옥되어 있는 유일한 양심수가 바로 제 친구 조덕원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진지하게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정렬적으로 투쟁했던 그는 아직도 창살밖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이후 실시된 세 번에 걸친 양심수 사면조치에서 그는 매번 제외되었습니다. 1992년,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생, 술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의 많은 구속자 중에서 사면 혜택을 받지 않은 양심수는 조덕원 뿐입니다. 도대체 왜 그만이 석방되지 않느냐고 법무부에 따졌더니,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라고 하더군요. '준법서약서 제출=사면'이라는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사면제외의 이유랍니다. 정말 이런 이유가 조덕원을 석방시키지 않는 이유라면, 공안당국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제는 사상전향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지요. 유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게만 가석방심사의 필수요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평등권의 침해이고 위헌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되어 함께 구속되었던 조덕원의 상급 조직원 및 주요 관련자들은 석방된 상태에서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조덕원만을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것은 너무

도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포기 대가로 석방이라는 미끼를 주는 것은 너무도 비열한 일입니다. 지난 2·25석방 취임 1주년 사면에서 이미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양심수들을 석방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덕원을 비롯한 많은 학생 구속자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연장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원이는 늙으신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장남을 7년째 감옥에 두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이, 남편의 옥바라지를 7년째 하고 있는 참담한 아내의 고통이, 태어나서 한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어느덧 초등학교가 돼 버린 어린 딸의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요즈음 우리는 여기 저기에서 21세기라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시대가 낳은, 청년 양심수 조덕원이 0.75평의 좁은 창상 안에서 석방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21세기 새 천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출소날은 아버지가 두번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금이 간 하늘, 금이 간 얼굴, 금이 간 나무, 금이 간 새...

육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풍경들이 금이간 채로 생채기 나있는 곳. 한쪽 눈을 꼭 눌러 감았을 때라야 만이 겨우 작은 세상을 온전하게 엿볼 수 있게 하는 쇠창살. 모든 공간이 벽과 벽으로 창살과 창살로 감시와 통제로 금 그어져 있는 공간, 바로 그곳이 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번이니 18번이니 왼쪽가슴에 붙게 새겨진 수번호에서 '김희경'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지 이제 석달째를 맞고 있는 저는 97년 강충련 산하 한림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자 5기 한총련 대의원 김희경입니다. '이적단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로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후, 올 4월 26일 경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했지요.

그런데 기쁨으로 온천하가 내 것인양 날뛰어야 할 제 출소날은 생애 가장 슬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셔야 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미 반년전 제 곁을 떠나셨다구요. 너무나 건강하신 아버지였기에 당신의 돌연한 운명소식은 어두운 감옥속에 다시 내던져지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98년 10월 8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 몸쓸 딸은 아무것도 모른채 무려 반년을 철없이 살았다는, 편안하게 떠나셔야 하는 아버지의 먼길을 가로막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사연을 들으며 그 원인은 다름아닌 이 나라의 모호한 법집행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선배와

친구들은 당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탄원서 형태로 귀휴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기의 2/3에서 약 20여일이 부족한 일수를 복역하고 있었다"는 이유와 "귀휴의 행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저의 불참하에 장례식은 치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선배들은 저와 비슷한 경우에서도 귀휴조치를 받았던 사례들을 모았고 비록 장례식은 지나갔지만 대구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되었고 이후에 더이상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법적 소송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엄연히 행형법상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여타 귀휴조치를 받았던 분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던 제 귀휴조치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지검 백승훈 검사에게 불허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도 특별한 답변이 없었을 뿐더러 구차한 개인 신상에 대한 이유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으니 막내딸이 특별히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저는 비단 그런 구차한 이유뿐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권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겠거니 하는 안일한 검찰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헌법의 평등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집행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에도 지금의 모호한 제도적 장치로는 얼마든지 담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99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할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화합과 인권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걸맞지 않는 것이며, 한 죽음으로 파생될 수 있는 한 개인의 슬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는 혹여 당신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준법서약서를 거부해 안나온 독한 딸이라 손가락질이라도 받을까봐, 감옥안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면 딸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까봐,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이 모래성처럼 스러질까봐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께 제발 회경이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른채 매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라고 써내려간 저의 편지를 보시면서 어머니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온몸이 소금덩어리가 되시도록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전국의 옥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타의에 의해 인륜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부의 제도화된 인권정책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름을 맞고 있는 양심수들이 이번 여름의 고비만 넘겼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작년 여름처럼 남겨진 양심수와 떠나는 양심수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 획으로 남을 수 있는 99년 8·15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매년 민가협에서 보내주신 영치금은 제겐 한 달 생활을 요긴하게 꾸릴 수 있을 만큼의 값진 것이었기에 이 기회를 빌어 양심수 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로 양심수 석방,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기구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나 언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1년 반이 지난 오늘의 인권현실은 안타깝게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양심수가 풀려났지만 대부분은 사상 전향제를 대신해 나온 준법서약을 이유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무작위적 구속도 여전하고 경찰 등 공안기구의 마구잡이 구속관행도 역대정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감옥에는 290여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대통령은 인권상을 수상하며 "이번 8·15를 기해 양심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등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올 8월에는 전세계를 향해 밝힌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양심수와 그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가협에서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명동성당에서 '99 양심수 석방 캠페인'을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양심수들을 감옥 밖으로 나오게 했던 회원들의 노력과 땀을 모아 아직도 갇혀있는 양심수 모두를 석방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뜨거운 8월, 명동성당에서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낼 분을 찾습니다.

지금 곧 사무실로 전화해 주세요.(763-2606)



지문날인 거부한다 — 사회인사 151인 거부선언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사회 인사들이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일, 김진균(서울대 교수), 이부영(전교조 위원장), 문정현(신부), 김종구(인의협 회장) 등 151인은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회인사 1차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자들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강제할 수 있는 지문날인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서식규정에 의해서 강제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 30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지문 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들은 전국민적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펼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정원, 대학생에 프락치 활동 강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학생에게 접근해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대생 강성식(체육교육과 4년)씨는 최근 국정원 요원 이양수씨가 자신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강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과선배임을 앞세워 접근해 서울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들의 근황을 거론하면서 정보제공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또한 강씨가 교생실습중인 학교로 찾아와 "서울대 안에서 북한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달라"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3년전 기소유예 전력을 내세우며 "너 인생 망치고 싶냐. 네가 임용고시에 합격한다고 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등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 지난 6월 23일, 양심선언을 한 강씨는 "협박과 회유속에 보낸 한달여 기간은 절망, 불안,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런 기간이었다"며 "작은 용기가 이 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세우는 작은 밑거름이 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정합니다

- 지난 달 소식지에 나간 김인수, 최하중 선생님 댁 전화번호를 정정합니다.
(02)878-0079

1 • • 문익환 목사 방북 10주년 기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한마당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위로' (자통합, 전국연합, 고려대총학생회 등 공동 주최 · 주관/고려대 인촌기념관)

• • 군 의문사 진상규명 규탄집회(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전군협 공동주최/국방부 앞)

•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 • • 부산구치소의 폭력 · 강제이감에 대한 각계 인사 기자회견 및 간담회(느티나무 카페)

• • 김태정 법무부장관 퇴진, 검찰개혁 촉구 시민 · 사회단체 연합 집회(광화문 청사 뒤)

• • 민가협 283회 목요일집회. 군대, 교도소의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로 이른바 울산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의 부산구치소 폭력 강제이감 규탄(구속자 정대연씨 부인 박희영 님),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해 국방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회장 이혜숙 님 발표.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의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연설,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김일숙 님 발표.

4 • • 32개 시민 · 사회단체,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의문사 제3의 독립기관에서 조사할 것' 요구

6 • • 문익환 목사 5주기 용정모임에 참석한 김규철(민자통상임의장) 등 4명 김포공항에서 국가정보원들에게 긴급체포, 옥인동 서울청 대공분실로 연행.

•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 300일 맞아 하루차집, 콘서트 열다.

7 • • 민족 ·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준비위원회 대표자 회의(향린교회)

• • 제10회 민족 ·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선포식 및 촛불미사(명동성당)

• • 용정 추모모임 대표 연행에 항의하여 옥인동 대공분실 앞 규탄집회

• • 113개 시민 · 사회단체, 김태정 법무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를 위한 국민연대 행동주간 선언 기자회견(참여연대 강당)

• • 민주노총, 전교조 등 137개 시민 · 사회단체 각계 인사 100여명, 도시빈민 · 노점상 등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8 • • 제4회 늦봄통일상 시상식 및 늦봄 통일상을 수상한 리영희 교수 기념 강연회(기독교회관/사단법인 통일맞이 주관).

• • 이한열 열사 12주기 열사정신 계승 민족대회(연세대 노천극장/이한열 열사 추모기획단, 민권공대위 공동주관)

9 • • 참여연대 등 98개 시민 · 사회단체, 조폐공사 파업유도를 주도한 초법적 '공안대책협의회' 해체촉구 기자회견(명동 한빛요양원 앞)

• • 6월 민중항쟁 12주년 행사추진위원회 주관,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가고자 하는' 각계 610인 선언' 발표(서울 명동성당)

10 • • 민가협 284회 목요일집회,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부산구치소의 폭력사태(박경순씨 부인 김이경 씨 발표) 사례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호소문 낭독(구속자 이철현 씨 부인 박진영 씨), 한양대생 대량구속 사태에 대해 구속자 장성모, 임은희 학생 어머니 발표, 문익환 목사 회고모임에 참석하여 구속된 용정모임 대표단 사례에 대해 이용규 인천연합 의장 발표.

• • 민족 · 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목요일기도회(기독교회관)

• • 문익환 목사 추모 용정모임 대표 연행 규탄 집회(명동성당 들머리)

11 •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 문병. 이강일 원장 찾아 뵙고 감사인사. 선생은 다리를 조금 움직이시고 손가락에 약간 힘을 주기도 하심.

• • 서울지법 민사 3단독(김종필 판사),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전력 때문에 수년간 검찰과 경찰이 불법사

찰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음 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만 원을 음씨에게 주라며 원고 승소판결.

• 서울경찰청,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양대생, 졸업생 등 22명을 강제연행, 그 중 현역 사병 등 13명 구속.

- 12 • '김대중 정권의 노조탄압분쇄 및 민주노총 4대요구 쟁취 결의대회' (서울역 광장/민주노총 주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장까지 거리행진

• 전국연합 주관 용정추모 모임대표 구속규탄집회 (광화문)

• '제10회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와 추모공연 '열사 그리고 역사' (독립공원/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주관)

- 13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남측본부 출범식 및 통일한마당' (홍익대)

• 6.10 항쟁12돌과 한겨레 창간 11돌 기념 '행진 6.10 시민 달리기대회' (6월 민주항쟁 12주년 행사 준비위 주관). 민가협 등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세대를 출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까지 달리기.

- 13 • 양심수후원회의 큰 후원자이셨던 고 주명순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1주기를 맞아 13일, 가족, 친지들과 고인의 묘소 참배.

- 14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 이 아무개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건에서 '꽃파는 처녀' 등 북한 영화 7편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무죄선고

- 16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 대책위원회 참석(조계사 농성천막)

• 22개 시민·사회단체 '서해교전 평화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향린교회).

- 17 • 민가협 285회 목요집회. 최호경씨(1992년 구속, 20년형)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부인 황선희 씨 낭독, 조덕원(1992년 구속, 8년형) 석방대책위에서 석방

촉구(조국연씨 발표), 최근 국제사회주의자들 대량 구속사건에 대해 이지영씨 발표.

• 이른바 '반미구국한양' 조직 혐의로 한양대생 대량구속 사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구속을 규탄하는 항의집회(서울연합, 민가협 회원등/검찰청 앞에서).

•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프랑스에 망명해 있던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홍세화 씨 귀국 환영식 및 <썸네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출판기념식이 열린다.

- 18 • 양심수후원회 11차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만남의 집' 등 운영에 관한 개선책 논의

- 19 •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 하루주점(연세대), 최호경(민애전사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 석방과 후원을 위한 하루주점(경원대) 방문

- 20 • 양심수후원회 6월산행. 세 살박이 부터 80세 이상 노인까지 41명이 함께하다. 당고개역에 모여 수산 남쪽정상을 오름. 산정 가까이에서 맛있는 도시락과 시원한 막걸리로 갈증을 풀다. 다시 당고개역으로 내려와 역사에 둘러앉아 막걸리와 수박으로 목을 적시며 평가를 하고 헤어지다.

• 조덕원(고려대 법대졸, 92년 민애전 사건 구속, 현재 춘천교도소 수감중) 석방추진위원회 발대식(고려대 민주광장) 참가.

- 21 • 5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 13명과 미결 양심수 137명에게 영치금 발송

• <말> 7월호를 5명의 양심수에게 발송

- 22 • '세계적인 수학자·통일운동가 안재구 박사 석방추진위원회' 발족식(종로성당) 참가. 김승훈 신부, 박용길 장로, 이해동 목사, 김동완 목사, 김진균 교수를 공동대표로.

•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가협등 인권단체들은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이양수(36)씨가 서울대생 강성식씨에게 '프락치'를 강요한 만행을 폭로 규탄하는 기자회견 갖다.

- 24 • 민가협 286회 목요집회. 국정원의 서울대생 강성씨에게 프락치를 강요한 사건(강군 누나 강선희씨)

표), 결혼을 앞둔 민권공대위 활동가 권오혁 씨 구속 사례(약혼자 한지연씨), 92년 민애전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씨 석방호소(부인 황선희씨).

• • 국정원의 프락치 강요공작 규탄집회(국정원 앞/민가협, 서울대생들이 함께하여 열다)

• •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대규모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95개 사회단체)

25 •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 대책위원회 참석(조계사)

• •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 행동연대(준)' 제1차 대표자 대회(향린교회) 및 결성식

26 • • 대구교도소에 2년째 복역중인 한총련 4기 의장 정명기 학생 면회. 유춘도, 안일순 님과 함께.

• • 대경지역 양심수후원회 4차 대의원대회 참가. 한

기명, 함철호 외 3명의 공동대표 비롯, 고문, 감사,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 임원선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

27 • • 대구지역 출소장기수 선생님의 공동체 '민들레 집' 방문, 김종호 김창원 선생님 인사드림.

28 • • 민가협 운영위원회. 양심수 석방 8월 캠페인 등 논의

29 • • 제10회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를 위한 4차 대표자회의(향린교회)

30 • • 김대중 대통령, 민주노총 등의 요구를 수용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김정길 법무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

• • 낙성대, 갈현동 만남의 집과 과천 한백의 집 및 무연고 출소선생님들 생활 지원금 드림

• •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최호경, 민경우, 이화춘 자녀에게 전달

회원소식

•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님 아들, 이회건 님이 윤석희 님을 맞아 6월 12일, 교육문화회관에서 많은 분들의 축하속에서. 화축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움시통감시통은 29일, 권오현 선생님 집들이겸 6월 모임을 갖고 7월 16일(밤10시 출발) - 18일까지 국토의 남단 '진도풍물기행'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의 용장산성, 남도석성을 비롯 '소치'의 남도와 관련된 윤림삼방과 가하해수욕장, 울돌목 등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유명한 진도풍물 김길자, 김해순님 집도 방문합니다. 참가비는 75,000원. 연락처 395-1800/017-321-1800으로 문의바랍니다.

• 참, 서은숙 회원이 6월 26일,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한희숙 회원이 경기도 군포시 당동(4호선 군포역 근처)에서 기원을 열었습니다. 바둑에 남다른 취미나 열정이 있으신 회원들은 자주 들려주시랍니다. 유림기원(전화 0343-453-5237)

• 19일, 음성 '꽃동네'에 머무셨던 류한욱 선생님께서 봉천동 '우리탕제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셨습니다. 31년 육고를 치루고 1991년에 출소하신 선생님은 1967년 뇌졸중으로 왼쪽몸을 못쓰는 투병을 해오셨

습니다. 동지들 곁에 있고 싶다고 늘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탕제원'에 계시면서 그리웠던 육중 동지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21일, 봉천동 '우리탕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셔서 '우리탕제원' 개원기념미사를 집전하셨고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와 사회사목부 교정사목위원회 공동으로 주선한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이종 선생님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출소선생님들과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과 여러 어머니들 그리고 청년사회단체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탕제원'이 평화롭고 안정된 보금자리로 발전하고 유한욱, 조창순, 안학섭, 양희철 선생님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빌었습니다.

• 소재국 회원이 과천 한백의 집에 책 30권을 기증하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김용심(서울시 후암동) 박인석(인천시 갈산1동)

최지혜(서울시 방학2동) 정정자(서울시 송월동)